

2006년 대중 무역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박현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jpark@kiep.go.kr, Tel: 3460-120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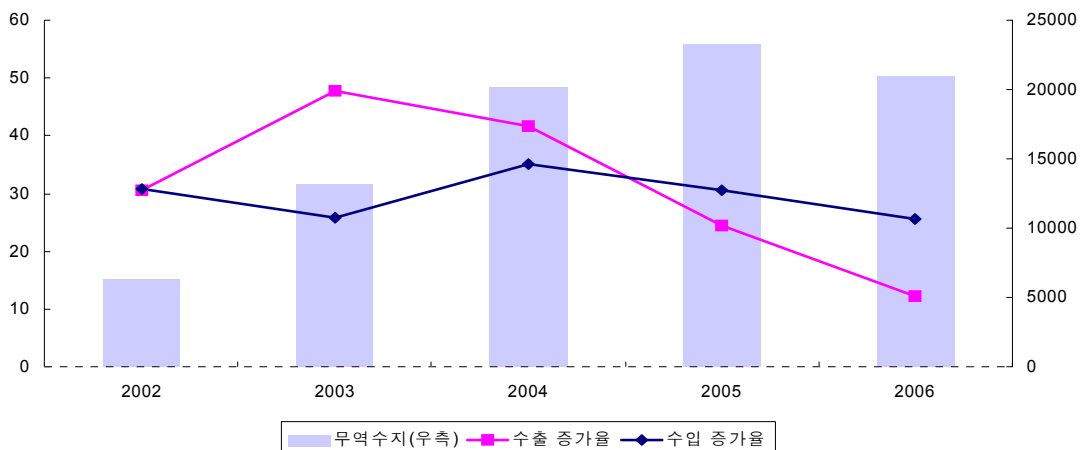
- 2006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2005년 대비 10.2% 감소한 209억 달러를 기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 및 소재의 흑자 총액도 198.4억 달러로 2005년 흑자 총액(200.1억 달러) 대비 0.8% 하락하였음.
- 2003년과 2004년 40%를 넘어섰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는 12.2%에 머물렀으며, 주요 품목별로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증가율만 상승하였을 뿐,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판 등의 수출증가율은 모두 둔화되었음.
-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의류,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25.6%)를 유지하였으며,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도 상승하였음.
- 그동안 한·중 교역은 주로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관련 부품을 한국이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해왔음. 이러한 교역 구조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산업생산 확대, 현지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중국의 경기 변동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수출 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
- 2006년 대중 무역흑자 감소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이 노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역 환경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유리한 요인 보다는 불리한 요인이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기업 및 중국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 강화, 한·중 분업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위안화의 추가절상에 대비한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 등의 대중 수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1. 2006년 대중 무역흑자 감소

- 2006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10.2% 감소한 209억 달러를 기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그림 1 참고).
-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2.2% 증가한 694억 달러, 수입은 25.6% 증가한 485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대중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그림 1 참고).

그림 1. 한국의 대중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흑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대중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¹⁾ 부품 및 소재의 무역흑자액은 198.4억 달러로 2005년 (200.1억 달러) 대비 0.8% 하락함. 부품 및 소재의 수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429.5억 달러, 수입은 31.7% 증가한 231.1억 달러를 기록함(표 1 참고).
- 2006년 대중 교역에서 소재류 무역흑자는 증가하고, 부품류 흑자는 감소함.
- 품목별 무역흑자를 살펴보면, 중국내 수요 확대와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석유 관련 제품의 흑자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판 등의 흑자는 감소하였음(그림 2 참고).

1) 2005년과 2006년 대중 무역흑자에서 부품, 소재의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와 94%를 기록함.

표 1.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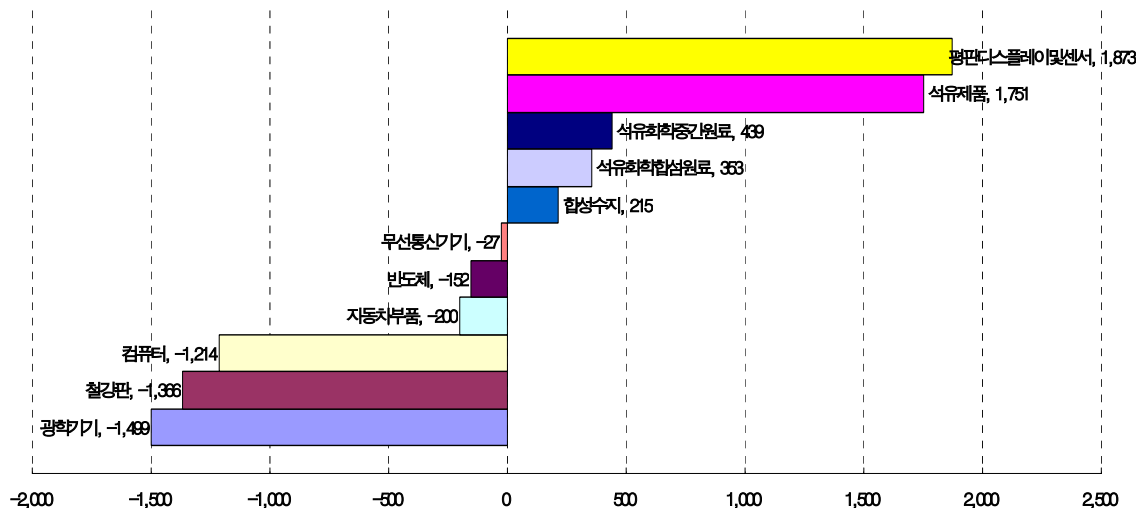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5년				2006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전자부품	12,414	62.1	4,238	31.8	15,764	27.0	5,788	36.6
화학물 및 화학제품	8,761	21.6	1,584	34.3	9,622	9.8	2,045	29.2
제1차 금속제품	4,163	15.5	4,210	41.5	4,540	9.1	5,484	30.3
전기기계부품	2,593	50.4	2,950	30.4	3,385	30.6	3,737	26.7
수송기계부품	2,773	52.8	221	105.1	2,732	-1.5	406	83.9
일반기계제품	1,883	12.3	786	41.0	2,184	16.0	1,105	40.6
컴퓨터 및 사무기기	2,339	-31.4	1,625	40.4	1,999	-14.5	2,112	29.9
섬유제품	1,033	14.0	1,045	14.6	1,007	-2.5	1,216	16.4
정밀기기부품	635	82.4	226	52.7	712	12.0	310	37.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58	36.5	167	52.6	583	4.5	273	63.1
조립금속제품	256	39.4	170	49.0	254	-0.7	234	37.6
비금속광물	164	-12.6	334	10.8	173	5.6	407	22.0
부품 및 소재 전체	37,571	29.0	17,556	35.0	42,955	14.0	23,117	33.0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 통계

그림 2.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증감액 분포(2006년/MTI 3단위 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또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품목은 음향기기였으며, 알루미늄, 전자응용기기, 정전기기 등은 적자가 심화되었음(표 2 참고).

표 2. 대중국 흑자 및 적자 업종(2006년/MTI 3단위 상위 제품)

대중국 흑자 업종			대중국 적자 업종	
흑자 확대	흑자 축소	적자→흑자 전환	흑자→적자 전환	적자 확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석유제품, 영상기기, 석유화학합성원료, 동제품, 합성수지 등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판, 기구부품, 전선, 플라스틱, 기타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건전지 및 축전지	음향기기	알루미늄, 전자응용기기, 정전기 등

- 대중 무역흑자를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본재의 흑자는 감소하였고 소비재의 적자는 확대되었음(표 3 참고).

- 자본재의 무역흑자액은 2005년 181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0억 달러 감소한 171억 달러를 기록함.
- 소비재의 경우 무역적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던 내구소비재가 2006년에는 적자로 전환됨.
- 대중 자본재 흑자 감소는 전자부품, 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사무기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재 적자는 음식료품, 의류, 알루미늄, 컴퓨터, 음향기기, 가정용 전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3. 대중 무역수지(성질별)

(단위: 백만 달러)

무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액	13,201	20,178	23,266	20,903
원자재	7,485	9,429	9,190	9,852
자본재	7,981	14,011	18,142	17,164
소비재	-2,274	-3,316	-4,131	-6,178
직접소비재	-1,445	-1,531	-1,851	-2,116
내구소비재	1,267	577	414	-420
비내구소비재	-2,096	-2,362	-2,694	-3,642
기타	9	54	65	6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 대중 무역흑자 감소의 원인

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부진

- 수송기계부품(자동차부품 포함),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일부 부품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축소와 중단이 부품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자동차부품과 컴퓨터부품의 경우 주로 재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 내수와 관계 없이²⁾ 진출기업의 생산량 감소로도 대중 수출이 부진할 수 있음.
 - 예컨대,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은 심양 삼보컴퓨터의 생산 중단으로, 그리고 자동차부품은 국내 기업의 CKD(Complete Knockdown: 완성품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출하는 것) 수출 포기과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의 일괄생산체제 가동으로 관련 부품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지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수송기계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역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 수송기계부품의 대중 수입증가율은 2005년 105.1%에 이어 2006년 83.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수출증가율은 2005년 52.8%에서 2006년 -1.5%로 크게 둔화됨.
 - 컴퓨터 및 사무기기 역시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중 수입증가율은 각각 40.4%와 29.9%를 기록함(표 1 참고).

나. 부품 조달의 현지화 가속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부품 조달 현지화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 초기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던 데서 벗어나 원부자재 조달을 현지화하고 있어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2006년 KOTRA에서 발표한 재중 투자기업 Grand Survey 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부자재 조달선은 중국(52.7%), 한국(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2005년 44.8%에서 2006년 37.8%로 하락하였

2) 2006년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은 전년대비 35.3% 증가하였고,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의 경우도 중국의 수입은 각각 16.3%, 10.6%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였음.

음. 향후 원부자재 조달 계획 역시 현 상황을 유지(46.8%)하거나 중국 위주로 변경(51.2%) 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앞으로도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큼.

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 최근 원화 강세는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대중 무역흑자가 감소된 2006년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7.4% 평가절상되었으나,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의 경우 각각 2.6%와 2.4% 평가절하됨(표 4 참고).

표 4. 한국·일본·대만의 대중 위안화 환율 추이(연말 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 원화	155.8	147.3	142.8	131.9	128.2	119.3
일본 엔화	14.9	14.8	13.1	12.8	14.5	14.9
대만 달러	4.2	4.2	4.1	3.9	4.1	4.2

자료: Bloomberg

-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은 주요 경쟁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06년 중국의 대일본 및 대대만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8.6% 포인트와 1.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6.9% 포인트 둔화되었음.

라.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잉여물량의 수출 증가

-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대중 수입이 확대되는 품목은 IT 관련 제품이며,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임. 또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잉여물량의 수출 증가는 철강제품에서 두드러졌음.
- 2001년 이후 중국 제조업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 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³⁾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음.

3) 중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자 및 통신설비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분야임(전체 제조업 투자의 약 20%를 차지). 또한 일반기계와 전용설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2년~05년 사이 일반기계와 전용설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2%와 25.8%를 기록하여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상회하였음.

- 특히 IT 부품 소재 산업인 집적회로, 무선통신기기부품, 광학기기의 경우, FDI 증가와 외자기업의 생산 확대로 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표 5 참고).⁴⁾
- IT 산업의 생산 확대로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각각 23.9%와 344.7%, 휴대폰 생산 증가율은 각각 30.0%와 58.2%를 기록함.

표 5. 주요 품목별 중국의 수출입증가율 및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단위: %)

	집적회로			무선통신기기부품			광학기기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수출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수출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수출
2002년	64.3	55.5	118.4	39.6	15.0	161.2	69.4	213.5	331.9
2003년	52.6	58.3	107.9	74.5	75.3	100.5	233.4	181.3	686.3
2004년	70.2	46.8	113.0	58.5	72.4	68.7	117.6	82.8	293.9
2005년	30.2	33.8	132.8	50.5	33.2	18.5	66.5	32.1	113.1
2006년	47.6	30.4	-7.7	38.8	18.8	15.0	20.8	17.3	9.8

주: HS 4단위 기준입(8542, 852990, 901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중국무역 통계.

- 이러한 중국의 IT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따라 관련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주요 품목별 대중 수입을 살펴보면,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품목들의 수입액이 늘어났으며 특히 IT 관련 제품의 증가세가 뚜렷하였음. 컴퓨터(46.7%), 무선통신기기(37.3%), 전자응용기기(45.8%) 등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역시 비교적 높음(표 6 참고).
 - 반도체의 경우 대중 수출증가율이 2005년 117%에서 2006년 14.6%로 둔화세를 보인 것과 달리, 대중 수입증가율은 36.7%에서 62.6%로 증가하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질렀음.
 - 무선통신기기 역시 2006년 대중 수출증가율은 14.4%, 수입증가율은 67.9%를 기록함.
 - IT 산업의 완제품 가운데 노트북, 데스크탑 PC, 음향제품(DVD Player, MP3, 홈시어터 등) 등의 소비재는 조립라인의 중국 이전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4) 그러나 반도체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35%를 기록하였음. 또한 광학기기 가운데 가격탄력성이 낮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TV용 광학기기의 대중 무역흑자는 111.2% 증가한 12.3억 달러를 기록함.

표 6. 2006년 주요 품목의 대중 수입(MTI 3단위 상위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총계	29,585	35.0	38,648	30.6	48,557	25.6	15.7
컴퓨터	2,339	56.8	3,324	42.1	4,202	26.4	46.7
반도체	1,392	33.8	1,902	36.7	3,092	62.6	10.8
의류	2,093	9.7	2,188	4.5	2,842	29.9	78.9
철강판	961	450.1	1,982	106.3	2,604	31.4	32.4
전자응용기기	1,072	67.9	1,450	35.2	1,543	6.5	45.8
무선통신기기	559	94.9	826	47.7	1,386	67.9	37.3
알루미늄	937	61.7	1,097	17.1	1,293	17.9	26.4
석탄	1,557	55.1	1,529	-1.8	1,260	-17.6	23.9
정밀화학원료	748	39	1,012	35.3	1,165	15.2	26.0
정전기	694	35	921	32.7	1,144	24.2	35.1

자 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합성수지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2006년 대중 무역흑자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로 대중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음(2004년 41.7% → 2006년 -2.0%). 게다가 중국내 재고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설비 신증설에 따른 자급률 상승으로 대중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내 플라스틱제품의 재고액 증가율은 2002년 8.3% → 2006년 상반기 20.4%로 증가함.

- 합성수지 자급률은 2005년 59.6% → 2010년 65.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중국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잉여물량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품목이 철강제품임.

- 철강제품은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잉여물량 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의 위치(중국 철강 수출 중 21% 점유)를 점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내 수입 급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중국의 철강 산업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설비능력 증가로 2005년부터는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어 철강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수출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철강(HS 2단위) 수출증가율은 2005년 31.7% → 2006년 66.6%로 증가
반면 수입증가율은 2005년 11.0% → 2006년 -23.6%로 하락

마.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인한 중국산 부품 및 소재의 수입 증가

- 원화 환율은 2001년 이후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2001년 155.8원에서 2006년 119.3원으로 평가절상되었음.
- 이러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2006년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입증가율이 대중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음.

3. 전망 및 시사점

- 그동안 한·중 교역은 주로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관련 부품을 한국이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해왔음.
- 그러나 대중 수출 구조상 부품과 소재부문의 비중이 높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산업생산 확대, 투자기업 경영환경 변화, 중국의 경기 변동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 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
- 2006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축소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입은 이상의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며, 무역수지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무역흑자가 2005년 1,018억 달러에 이어 2006년에도 1,770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선진국의 통상압력 확대에 대비해 무역정책을 변화하고 있음.
 - 과도한 수출 증가를 막기 위해 수출환급세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있음.⁵⁾

5) 중국은 이미 2006년 1월 600여 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또한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졌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도 인하 또는 취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섬유, 가구, 피혁 등 노동집약형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를, IT 부품, 바이오 의약품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있음.

-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신규공장 설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시 환경규제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장진입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의 중국 진입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청정생산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제품생산자책임제도 등 환경 관련 규정도 강화해 나갈 것임.
-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도 변화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의 선별적 유치를 위해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이전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세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중국 산업발전의 가속화로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국산화율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수입대체가 아직까지 저급기술 위주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해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R&D 투자 강화 및 국내기업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어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은 빠르게 제고될 수 있음.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지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재중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중 수출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기업 및 중국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 강화, 한·중 분업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위안화의 추가절상에 대비한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 등의 대중 수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한국의 수출시장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품목별 수출에 있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것임.
- 주로 중국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및 소재를 수출하는 경우 현지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중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기업 및 중국내 외자기업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과의 공정분업을 좀 더 체계화하여 한국이 고부가가치 공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술집약도와 제품통합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거점이 보다 유리할 것임. 이러한 공정분업체제 구축은 국내의 높은 기술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함.
-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기술역량 강화가 중요함. 이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초역량을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경우 대중 수출증가율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임.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로 위안화의 추가절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화환율의 안정성 유지 역시 중요한 수출입 전략임.